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음 8월 27일) 제16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진안 산약초타운에 만개한 구절초의 꽃내음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병풍처럼 둘러싼 임야에는 구절초가 만개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어 진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구절초 군락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6ha, 150만본을 심을 계획이며, 현재까지 4ha 면적에 100만본을 조성했다.

구절초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전국에 분포하며, 꽃색은 흰색 또는 연한 보라이고, 꽃피는 시기는 9~10월이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인과·신경계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가을의 전령사인 구절초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홍삼축제 기간까지 만끽할 수 있으며, 마이산 풍경과 함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은 마이산북부 입구 홍삼산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교육부 인센티브 지급액 최하위”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및 각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간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88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170억원에 이어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국 9개 도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도 도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교부금현황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최하위권인 9위를, 2013년과 2016

금액 188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적어 학생 1인당 계산시 도내 학생 포상금 1만3000원

노웅래 의원 “교육청 평가, 교육부 시책 강요 수단 활용”

년은 8위에 랭크됐다.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북교육청이 549억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고 대구시교육청이 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급된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전북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의 규모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학생 1인당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015년 전북지역 학생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1만3,000원에 불과했다.

서울 경기지역 각각 2,600원과 2,100

원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반면 제주도는 11만600원, 세종은 13만9,300원을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해왔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청 중심의 자치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 검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자치교육 사업 평가보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혀적인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점수 결과, 0.1점마다 사실상 인센티브 1억 원이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0.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수개월씩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려 있는 등 부담이 심하다.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도내 누리과정 교사들, 집단 결근투쟁 예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누리반 임시휴업 실시

도내 누리과정 교사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집단 결근투쟁을 예고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도 교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누리반에 대한 임시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연합회도 부득이하게 교사 없이 아이들만 받치 할 수 없어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이 종료되는 시한까지 누리반에 대해 임시휴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의 반발은 도내 누리교사들이 올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운영비

미지원으로 월 30만원 등의 처우개선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30일까지 밀린 처우개선을 지급하라며 집단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집단결근으로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1차적으로 집단결근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누리교사는 담임교사(1,327명)와 보조교사(256) 등 총 1,583명이다.

담임교사의 경우 6개월 간 18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교사의 경우 월평균 90만원씩 총 540여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GIMJE

김제시